

2010년 제2기 산림경영모델학교 운영

우리협회에서는 금년도 사업계획에 의거「2010년도 제2기 산림경영모델학교」운영을 하였습니다.

- 일시 : 2010. 12. 9(목)~10(금) [1박2일]
- 장소 : 경남 하동군 하동읍 청담회관, 대성편백찜질사우나 체험관
경남 하동군 옥종면 물안골 용용편백림
경남 하동군 화개면녹차시배지, 차문화센터, 쌍계사
- 참석자: 151명
 - 서울·경기·강원 : 12명
 - 충 북 · 충 남 : 12명
 - 전 북 · 전 남 : 46명
 - 경 북 · 경 남 : 81명
- 운영내용

1. 하문섭 회장 개최인사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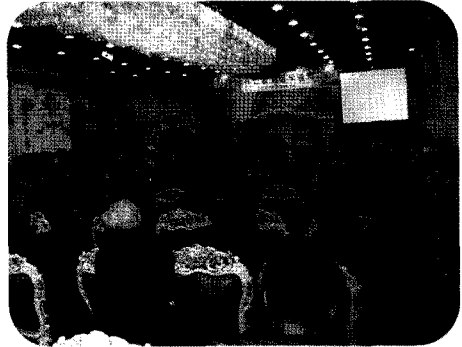
215만 산주를 대표하여 우리 400여명의 산림경영인들은 조림육림으로 휴식처제공, 국토보존, 청정환경유지, 산소생산공급, 이산화탄소흡수, 목재생산공급 등 공익 가치를 국가를 대신하여 창출하고 있는 자긍심을 가질 것과 이에 따른 정당한 보상을 받아야 마땅함을 강조했다.



우리나라의 산은 녹화에는 성공했으나 식재된 나무의 종류가 뿔 나무 수준의 잡목이므로 이제는 고급재질의 수종으로 대대적인 갱신이 필요하므로 국가시책의 초점을 이에 맞추고 특히 민간에 대한 자본보조로 독립가, 산주들이 직접수종을 갱신토록 하므로 관주도의 식목으로 실패한 전철을 밟지 않아야 한다.

2. 조연환 생명의숲 상임대표 특강

특강관련 내용은 본지 이번호에 『이 땅의 엘지 아르부피에를 찾아서』로 다음호에 『2010년 11월 12일, 43년 전에 관작사업으로 벌채하려고 했던 무주구천동 50임반 들 메나무를 돌아보고 와서』를 특별 기고문으로 실습니다.



3. 김의경박사『산림탄소권 확보를 위한 산주차원의 대응방안』강의

- 기후변화 대응 외국의 산림 정책에 대하여 일본, 영국, 호주, 뉴질랜드, 미국의 예를 들고
- 뉴질랜드 산림분야 탄소 배출권 거래제도와 흡수원으로서의 산림탄소권의 일본, 호주의 사례와
- 산림 흡수원으로서의 인정받기 위한 산림의 조건에 대한 것과
- 탄소권 확보를 위한 대응방안에 대한 산림경영인들의 자세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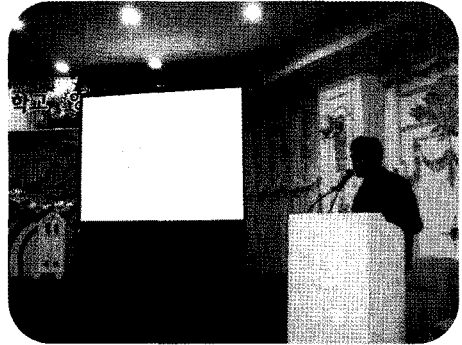


4. 함흥식 산림청사무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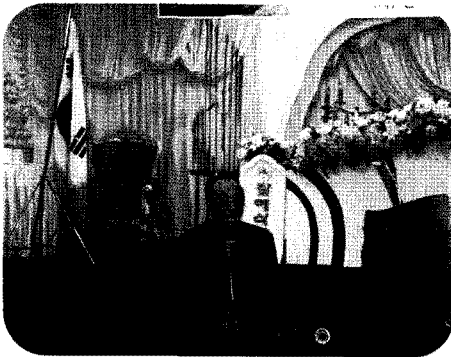
- 전문임업인 지원시책으로서
- 87억원의 임업정책자금지원
 - 맞춤형 경영지원사업
 - 대단위 산림복합경영단지조성사업

산림뉴스

- 세제지원사업에 대한 내용
- 정책자금융자신청시 주의사항
- 생산기반조성, 유통지원사업 등을 설명하고 회원들의 애로 및 건의사항을 청취하였다.



5. 김한태 명예회장의 협회의 위상에 대한 말씀과 김용지 고문, 유형열 경남지회장의 성공사례발표가 있었다.



김한태 명예회장

- ☞ 우리 협회의 그간의 발자취와 나아갈 방향에 대하여 조언



김용지 고문

- ☞ 물안골 용용편백림 조성성공사례 발표
40만주의 편백림이 1년에 40억원의 부가가치를 창출(1주당 1년에 1만원 가치증가)



유형열 경남지회장

☞ 산지다각경영 성공사례발표

2~3월: 고로쇠 수액

3~6, 9~11월: 생표고버섯

4~5월: 자연산두릅

5~7월: 자연산고사리

5~10월: 무농약꽃고추

9~10월: 송이버섯

1~12월: 잣, 건표고, 산더덕, 오미자차,

복분자차, 무농약 고춧가루, 무농약 울콩.



☞ 물안골용용편백림 현장체험

1년에 40억 원의 가치를 창출하고 있는 편백림 현지답사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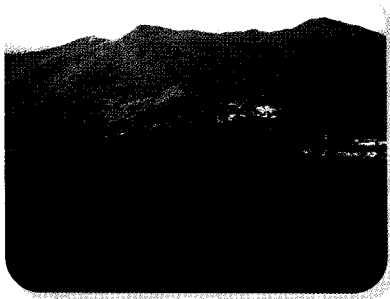


☞ 하동군 화개면 녹차문화센터에서

차 문화체험

중앙과 지방 소통 돋보이는 '2010 산의 날'

- 제9회 산의날 기념행사, 산림청·대전시 공동주최로 4일간 대전 일대에서 열려 -



산림의 중요성을 국민에게 알리고 산과 자연을 사랑하는 마음을 일깨우기 위해 제정된 제9회 산의 날을 맞아 기념식과 이를 축하하는 임업인 한마당 축제, 전국 노래자랑, 등산대회, 각종 세미나 등 다채로운 행사가 16일부터 4일동안 대전 한밭수목원과 계족산, 갑천 둔치, 만인산, 대전컨벤션센터 일대에서 잇달아 열린다.

산림청(청장 정광수)과 대전광역시(시장 염홍철)가 공동으로 주최하는 산의 날 축하행사는 산의 날인 18일 열리는 기념식에 앞서 16일 오전 피톤치드 걷기대회(계족산)와 오후 숲유치원 세미나부터 시작된다. 일요일인 17일에도 농산촌 전국 등산인 대회, 숲사랑마라톤 대회, 숲해설 프로그램 시연 경연대회, 산림치유 특강, 산악구조대 인명구조 시범 훈련, 산악구조 세미나 등이 줄줄이 이어진다.

산의 날 기념식과 임업인 한마당 축제는 18일 오전부터 한밭수목원에서 열린다. 이날 행사에는 유정복 농림수산식품부 장관과 정광수 산림청장, 염홍철 대전광역시장을 비롯해서 산림 관련 공무원 및 민간 인사, 시민 등 4000여명이 참가할 예정이다. 기념식에서는 산의 날 유공자를 표창하고 산림문화작품전 입상자들을 시상하는 자리도 마련돼 있다. 또 임업인 한마당 축제는 임업인들의 장기자랑, 남진, 이자연, 박상민 등 산림청 등산문화 홍보대사로 구성된 연예인 공연 등이 펼쳐진다.

19일에는 산림휴양 및 문화, 교육 등에 관한 세미나가 예정돼 있고 KBS 전국 노래자랑도 열린다. 또 행사기간동안에 소외계층 및 지역주민을 위한 숲체험행사, 대한민국 분재대전, 꽃누르미 작품 전시 및 체험행사, 밤소비 촉진 전국대회, 우리 임산물 판매장터 등이 상설로 마련될 예정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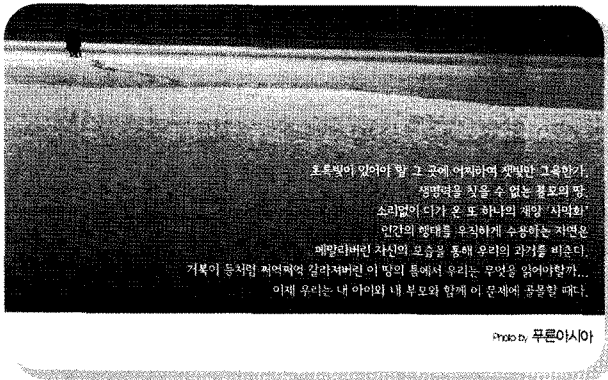
정광수 산림청장은 "여론조사 결과 우리 국민은 산이 가장 아름다운 가을을 산의 날로 정하는 것을 가장 선호했는데 마침 10월 18일은 '열 십(十) + 여덟 팔(八)=나무(木)'라는 한자 풀이도 가능해 이날을 산의 날로 삼았다"며 "올해는 교통이 편리하고 아름다운 산과 산림휴양시설이 많이 소재한 대전광역시와 공동으로 기념행사를 치르기로 해 중앙과 지방의 소통강화라는 의미도 더했다"고 설명했다. **산림**

문의 : 산림청 산림휴양등산과 권태원 사무관(042-481-4215)

더는 '남의 일'아닌 사막화 피해, 사진으로 보세요

더는 '남의 일'아닌 사막화 피해, 사진으로 보세요

- 산림청, UNCCD-1년 기념 전국 5개도시 순회하며 사막화 사진전 -



산림청은 5일부터 다음달 9일까지 한달여간 서울 등 5개 도시를 순회하며 사막화방지 관련 사진전을 개최한다.

이번 사진전은 국민에게 전 세계적 문제로 떠오른 사막화의 심각성을 알리고 내년 10월 경상남도에서 열리는 유엔사막화방지협약 당사국

총회(UNCCD COP10)의 성공을 기원하려는 목적으로 기획됐다. '초록을 꿈꾸다'를 주제로 열리는 이번 사진전은 UNCCD 공모전 작가 사진, 산림청이 보관한 국내외 촬영 사진, 국내 NGO 단체의 해외 촬영 사진 등 수년간 촬영·보관된 사진 60점이 전시된다. 특히, 심각한 사막 황폐화에서부터 녹화에 성공한 모습까지의 드라마틱한 내용이 파노라마식으로 전개돼 청소년 등에게 교육적 효과도 클 것으로 기대된다.

우리나라는 전쟁 후 황폐화한 지역에서 빠른 시간에 녹화에 성공한 나라로 인정받고 있으며 이런 국제적인 평판을 바탕으로 내년 UNCCD COP10 유치까지 이뤄냈다.

산림청은 UNCCD 개최 1년여를 앞둔 시점에서 열리는 사막화방지 사진전이 국민과 관련 기관에 사막화 피해의 심각성과 총회 개최의 의미를 알리는 데 효과가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임은호 산림청 국제협력과장은 "우리나라는 사막화의 직접 피해국은 아니지만 매년 중국으로부터 날아오는 황사 피해를 입고 있다"며 "이번 전시회가 국민들이 선진국과 후진국을 막론하고 전 세계적으로 피해를 초래하는 사막화의 심각성을 인식하는 계기가 되길 바란다"고 말했다.

이번 사진전은 북서울 꿈의숲(서울 11.5~8)을 시작으로 광주역(광주 11.11~16) 부산역(부산 11.19~22) 정부대전청사(대전 11.23~26) 정부과천청사(과천 11.29~12.2) 정부중앙청사(서울 12.6~9)에서 차례로 열린다. 관람을 원하는 국민은 별도 신청없이 해당일에 방문하면 누구나 사진을 감상할 수 있다. **山林**

문의 : 산림청 국제협력과 곽은경 주무관(042-481-8865)

"이제 임산물도 온라인 쇼핑몰에서 거래하세요"

- 임산물 직거래장터 'e-숲으로'개장...오픈이벤트엔 푸짐한 선물이 가득 -



질 좋은 청정 임산물을 인터넷상에서 사고팔 수 있는 인터넷 직거래 장터가 열렸다.

산림청은 지난 15일 온라인 임산물 쇼핑몰 'e-숲으로'(www.esupro.co.kr 또는 www.esupro.com)를 개장, 본격 서비스를 시작하고 오픈을 기념하는 다양한 이벤트도 함께 벌이고 있다. 이 사이트는 임산물 생산자와 소비자를 직접 연결해 소비자는 질 좋은 임산물을 싸게 구입하고 생산자는 안정적 소비 판로를 확보하도록 하는 등 양자가 만족하는 상거래 기반을 구축하기 위해 마련됐다.

산림청은 임산물 생산자들이 어렵게 생각하는 전자상거래 사업자 등록 및 결제대행 등의 운영과 관리를 (주)이지팜이 무료로 대행해 주도록 했다.

'e-숲으로' 임산물 직거래장터에 입점을 원하는 임산물 생산자는 산림청 산림경영소득과 (042-481-4207)나 (주)이지팜(031-292-4479)으로 연락하면 자세한 내용을 안내받을 수 있다.

"이제 임산물도 온라인 쇼핑몰에서 거래하세요"

한편, 산림청은 'e-숲으로' 개장을 기념하고 사이트를 보다 많은 국민에게 알려 참여를 유도하기 위해 30일까지 휴양림 무료이용권과 상품권을 나눠주는 등 다양한 오프닝 이벤트를 실시하고 있다.

우선 행사 기간동안 가입하는 회원을 50명을 추첨해 산림휴양림 1박 이용권과 산림청이 발간한 '찾아가는 100대 명산' '우리산 100' '우리 산에서 만나는 나무, 풀, 곤충, 버섯'을 준다. 또 'e-숲으로'를 블로그나 카페 등 타 커뮤니티에 홍보한 고객 10명에게도 상품을 제공한다.

이와 함께 행사 기간 매주 목요일(11월 18일, 25일) 열리는 목요일 이벤트 행사에서는 일부 임산물을 정가의 80~90% 가격으로 세일하고 행사기간동안 일부 품목은 10~20% 할인된 가격에 판매한다.

산림청은 또 입점자를 대상으로 상품 마케팅, 상품관리법 등 사이트 활성화에 유용한 정보 교육을 12월 2일 (주)이지팜과 합동으로 충남 아산시청에서 실시한다.

윤정수 산림청 산림경영소득과장은 "쇼핑몰 오픈이 임산물 전자상거래의 새로운 활로를 개척해 열악한 농·산촌경제에 도움이 됐으면 한다"면서 "e-숲으로"에서는 임산물을 앞으로 사고파는 것 뿐만 아니라 임산물 체험 정보를 얻고 산림청이 추진하는 다양한 행사와 정책 등을 실시간으로 알 수 있도록 운영해 나갈 계획"이라고 밝혔다. **산림**

문 의 : 산림청 산림경영소득과 이우식 사무관(042-481-4206)

산림청 대형헬기 2대, 연평도 산불현장 출동대기



24일 합참과 협의후 즉각 출동가능토록 김포에 배치... 특수진화대원도 긴급소집

산림청 산림항공본부(본부장 이경일)는 23일 자행된 북한의 연평도 포격으로 인한 산불을 진화하기 위해 합동참모본부와 공조해 대형 헬기(KA-32) 2대를 긴급 출동시키기로 하고 긴급 배치를 완료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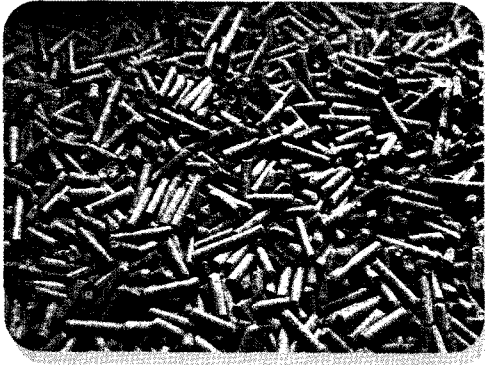
이에 따라 산림항공본부는 조종사, 정비사, 통신원, 특수진화대원 등 진화요원을 포함한 전 직원에 비상 근무체계를 발동했다. 항공본부는 해상 비행이 가능한 장치인 발로넷이 장착된 헬기 2대를 영암과 안동에서 이동시켜 김포공항에 전개하고 유조차는 연평도에서 가까운 영흥도에 전진 배치했다. 또 전국 항공관리소에 분산근무 중인 산불특수진화대원 중 25명도 긴급소집해 김포 본부로 이동시켰다.

이경일 산림항공본부장은 "합동참모본부와 산림청 산불대책본부가 협의해 헬기 투입을 결정하면 즉각 대형 헬기 2대를 연평도에 보내 산불 진화에 착수한다"며 "산불 추이 및 합동참모본부 협의 결과에 따라 특수진화대원 25명도 출동시켜 적극 대응하겠다"고 밝혔다. **산림**

문의 : 산림항공본부 산림항공과 정창덕 팀장(02-2166-4532)

청정에너지 목재펠릿을 알리면 과산으로 가라

- 30일 과산운동장서 제2회 목재펠릿대전...펠릿보일러·스토브 체험기회 -



청정에너지로 각광받는 목재펠릿을 직접 체험해 볼 수 있는 기회가 마련된다. 산림청(청장 정광수)은 30일 충북 과산군 다목적 운동장에서 펠릿 연료와 보일러, 펠릿스토브 등의 성능을 참가자들이 직접 볼 수 있도록 하는 제2회 대한민국 목재펠릿 대전을 연다.

충청북도의 산림문화행사와 함께 열리는 이번 행사에는 펠릿 보일러, 펠릿 스토브, 목재펠릿 연료 등 분야에서 선도적 역할을 하는 20여개 업체가 참여해 각 회사 제품을 홍보할 예정이다.

산림청이 2009년부터 보급 사업을 벌이고 있는 목재펠릿은 톱밥을 압축해 만든 청정연료로 보일러 등유나 경유 대비 30~50% 정도의 연료비 절감 효과를 가지고 있는 신재생 에너지다. 농림수산식품부와 협력해 농가, 시설하우스 등에 펠릿 보일러를 보급하고 있는 산림청은 열 사용이 많은 산업체도 펠릿 보일러를 사용을 권장하고 있다.

산림청은 펠릿대전의 부속행사로 펠릿협회 및 업체관계자, 산림청 및 각 지자체 공무원 등이 참여하는 펠릿정책 발전방안 토론회도 개최할 예정이다.

산림청은 이 행사가 우리나라 목재펠릿의 최신 동향을 파악하면서 펠릿 보일러 성능을 체험할 좋은 기회가 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진선필 산림청 목재생산과장은 "목재펠릿을 안전하고 편리하게 사용하고 연료비를 절감하려면 올바른 보일러 선택이 중요하다"며 "농가 뿐 아니라 시설원예, 일반산업체 등 에너지 비용 절감과 청정에너지에 관심있는 분들이 펠릿대전에 나와 보일러 성능을 체험해 보기 바란다"고 말했다. **山林**

문 의 : 산림청 목재생산과 함태식 사무관(042-481-4201)